

이형일 통계청장,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청장 면담

- 한국통계청의 통계 개발경험 공유 및 통계협력사업 논의 -

이형일 통계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잔지바르* 살룸 카심 알리(Mr. Salum Kassim Ali) 통계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 잔지바르는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의 자치령으로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섬 지역

이번 면담은 살룸 카심 알리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청장과 통계연수단이 한국 통계청이 주최하는 「통계와 정책 과정」 초청연수 참여차 방한하면서 이루어졌다.

< 연수 개요 >

- ▶ 연수목적: 한국통계청의 통계혁신사례 및 개발경험 공유
- ▶ 연수기간: 2024. 7. 21.~2024. 7. 27.
- ▶ 연수자(5명): 살룸 카심 알리 잔지바르 통계청장 및 중간관리자 4명
- ▶ 연수내용: 한국의 통계정책 및 혁신사례, 통계시스템 소개 및 통계데이터센터 등 방문

이번 초청연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잔지바르 사업은 한국통계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탄자니아 본토의 사업성과*를 보고 잔지바르 통계청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요청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탄자니아 무상원조사업(‘21~’23년): (‘21년) 인구총조사 지원 교육/ (‘22년) 통계전산강의실 구축/ (‘23년) 탄자니아 통계서비스시스템 개발/ (‘21~’23년) 초청연수현지교육 실시

** 잔지바르 무상원조사업(‘24~’25년): (‘24년) 통계전산강의실 구축, 통계서비스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초청연수현지교육/ (‘25년) 통계서비스시스템 개발, 초청연수현지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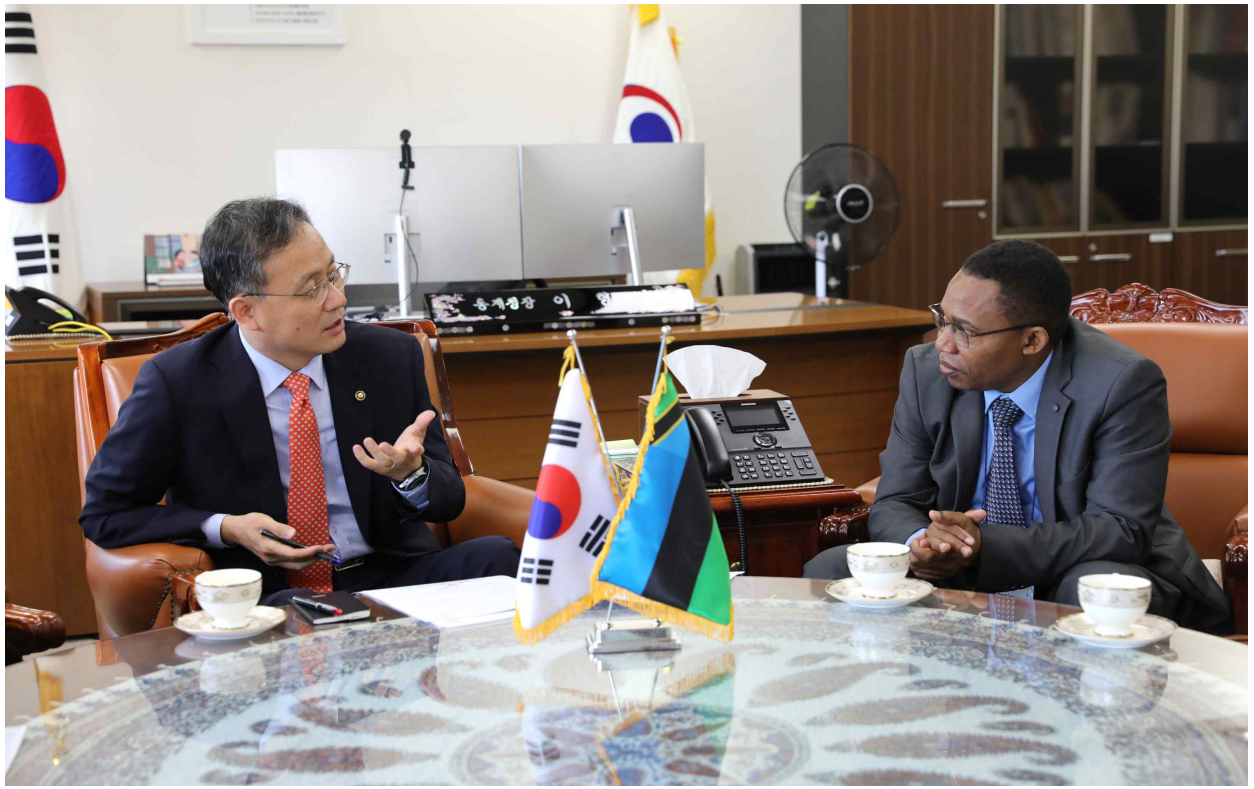
이날 이형일 청장은 현재 추진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과 한국통계청의 통계혁신 경험 공유 등에 대해 살룸 카심 알리 통계청장과 의견을 나눴다.

살림 카심 알리 잔지바르 통계청장은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사업과 통계 혁신사례 공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사업이 잔지바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통계청의 선진 통계시스템과 데이터 활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통계청은 2021년부터 3년간 탄자니아 본토 통계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라며 “잔지바르 무상 원조사사업은 현지 수요를 잘 반영하여 잔지바르에 특화된 사업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2-481-2095)
		담당자	사무관	박범선 (042-481-3603)





▶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청장과 면담하고 있는 이형일 통계청장(왼쪽)



▶ 탄자니아 잔지바르 초청연수단 면담 기념촬영(오른쪽에서 네번째 이형일 통계청장)